

# 하반기 전셋값은?...46% “오른다” vs 39% “내린다”

뉴시스,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에 조사 의뢰  
“당초 예상된 8월 전세대란 일어나지 않을 것”

국민 46%는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국민 39%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앱 사용자 4477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 전셋값 등락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6.2%(2019명)를 기록하며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 39.1%(1709명)보다 높게 나

왔다. 또 지금과 비슷한 ‘보합’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은 8.5%(371명)였고, 나머지 6.2%(272명)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하반기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46.2%·2019명) 가운데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입주 물량 부족’(37.4%·1571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임대차법 부작용 24.9%(1514명) ▲청약 대기에 따른 전세 수요 증

가 23.3%(631명) ▲분양가격과의 동조화 3.8%(48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39.1%·1709명) 중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월세 전환 증가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36.3%·1537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 전환 증가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 34.0%(1441명) ▲매물 출회 등 전세 물량 증가 17.6%(745명)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12.2%(5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년 내에 임차할 계획이 있다면 선호하는 주거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전세’가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반전세 20.2%, 임대주택 12.3%, 월세 9.3% 등

을 차지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안정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셋값도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며 5주 연속 떨어졌다. 시장에 전세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 ‘아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951건으로 2개월 사이 19.5% 증가했다.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전

세 수요가 공급물량이 많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많이 빠져나간데다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분산된 측면이 있다”며 “전세대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세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세가격이 안정되려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서울은 수급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불안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크라토스 모바일 앱 내 투표 참여자 447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 오차범위는 ±3.0%다. **정승호기자**



## 기아, 연식변경 K5 출시...2400만~3621만원

오늘부터 판매 개시...최상위 스페셜 모델 추가

기아는 중형 세단 K5의 연식변경 모델 ‘더(The) 2023 K5’를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판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가니시를 적용해 외장을 더 고급스럽게 하고 기존에 옵션으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일부 고급 편의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K5 연식변경 모델은 고급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 뒷좌석 측면 수동 선택등을 기본화하고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기존 선택사양으로 운영하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 적용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노블레스 이상 고급 트림에 전방레이더를 기본 탑재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전방 충돌방지 보조(사이클리스트/교차로 대항차)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최상위 스페셜 모델 ‘블랙 핏’을 추가했다. 블랙 핏 모델은 외장의 경우 ▲18인치 블랙 포인트 전면가공 휠 ▲블랙 하이그로시 리어 스포일러를, 내장에는 ▲스웨이드 헤드라이닝 ▲스웨이드 A/B 필라 ▲헤어라인 패

턴 가니시 등을 적용했다. 더 2023 K5의 가격은 2.0 가솔린 모델의 경우 ▲트렌디 2400만원 ▲프레스티지 2651만원 ▲노블레스 2862만원 ▲시그니처 3205만원이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트렌디 2479만원 ▲프레스티지 2768만원 ▲노블레스 2979만원 ▲시그니처 3284만원이다.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렌디 2834만원 ▲프레스티지 3031만원 ▲노블레스 3262만원 ▲시그니처 3551만원(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및 개별소비세 3.5% 반영 기준)이다. 2.0 가솔린 모델과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블랙 핏 사양을 선택하면 50만원, 2.0 하이브리드의 경우 70만원이 각각 추가된다. 기아 관계자는 “K5는 혁신적인 외관과 세련되고 정제된 내장으로 출시 초기부터 꾸준한 사랑받아 온 모델”이라며 “고객 선호도 기반으로 상품성을 강화한 ‘더 2023 K5’에 더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더욱 프리미엄해진 최상위 스페셜 모델을 통해 중형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5는 지난해 약 5만6000대가 판매돼 국산 중형차 시장점유율 52%(영업용 미포함 기준)를 기록했다. **이슬비기자**

## 삼성, 라이프스타일TV ‘더 세리프’ 블라썸 핑크 출시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The Serif)’ 블라썸 핑크 색상을 출시했다. 18일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블라썸 핑크 색상 신제품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식 출시는 8월9일이다. 블라썸 핑크 색상은 기존 클라우드 화이트·코튼 블루에 이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출고가는 기존 더 세리프 55형과 같은 219만원이다. 사전 판매는 삼성닷컴에서 진행한다. 해당 기간 동안 출고가 대비 40만원 할인된 179만원에 판매한다. 또 ‘티빙 프리미엄’ 1년 이용권,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4만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더 세리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 로랑·에르완 부홀레(Ronan·Erwan Bouroullec) 형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제품이다. 세리프체 글꼴의 알파벳 ‘I’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가구와 TV의 경계를 허문 제품으로 평가받는 더 세리프는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다.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매직스크린’ 콘텐츠를 활용해 미술 작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TV 상단 중앙부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감상하고 있던 음악을 TV 사운드로 바로 즐길 수 있는 NFC 사운드 미러링 기능도 제공

클라우드 화이트, 코튼 블루 이어 신규 색상 공개



한다. 애플의 ‘어어플레이2(Airplay2)’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모바일 기기와의 뛰어난 연결성을 갖췄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성일경 부사장은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색상의 ‘더 세

리프’를 통해 소비자들께 좀 더 다양한 제품 경험을 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채로운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신일 선풍기, 한국소비자원 시험·평가 ‘풍량’ 최고

AC모터·DC모터 적용 선풍기 ‘풍량 우수’



신일전자의 2개 선풍기 제품의 풍량이 타 제품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은 자사의 ‘AC모터 적용 선풍기(SIF-14THR)’와 ‘DC모터 적용 선풍기(SIF-T14PDD)’가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한 선풍기 시험·평가 결과에서 ‘풍량’이 가장 우수한 2개 제품에 뽑혔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

정용 일반 선풍기 9개 브랜드의 15개 제품에 대해 풍량·소음·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풍량이 가장 많은 AC모터 적용 선풍기의 경우 풍량이 가장 적은 타사 제품과는 2.2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전력당 생산하는 풍량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에서는 신일의 DC모터 적용 선풍기가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신일의 AC모터 적용 선풍기의 경우 일반용으로, DC모터 적용 선풍기의 경우 공부방·수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추천했다. 신일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품질 만족지수(KS-QE) 선풍기 부문에서도 16년 연속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김재환기자**

## 필립스, 전기면도기 ‘이지 앤 고’ 출시

3D 플렉스 헤드·파워컷 시스템으로 간편 면도



필립스는 감각적인 슬림형 디자인에 깔끔한 밀착면도가 가능한 전기면도기 ‘이지 앤 고’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필립스 이지 앤 고 전기면도기는 ‘3차원(3D) 플렉스 헤드’가 얼굴 윤곽을 따라 3가지 방향으로 유연하게 움직인다. 스스로 날카롭게 연마하는 면도날이 정밀하게 설계된 ‘파워컷 시스템’을 통해 일관된 밀착면도를 선사한다. 또 필립스의 피부 보호 시스템 ‘스킨 가드’는 면도날이 피부에 직접 닿아 발생하는 상처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슬림한 블랙 컬러의 바디에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IPX7 완전 방수 등급으로 샤워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다. 필립스는 22일까지 네이비소프 ‘신상위크’를 통해 이지 앤 고 전기면도기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제품 할인 행사와 더불어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 **오유나기자**

필립스코리아가 자기만의 개성있는 디자인과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젠지(GenZ, GenerationZ) 세대’를 겨냥한 전기면도기 신제품을 선보인다.

## 강화유리 뚜껑·스팀홀 탑재...‘스팀엔 올 글라스’ 출시

코렐브랜드, 파이렉스 친환경 제품

주방용품 기업 코렐 브랜드의 내열유리 식기 브랜드 파이렉스는 뚜껑까지 유리 소재로 만든 친환경 스토리지 ‘스팀엔 올 글라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스팀엔 올 글라스는 국내 최초로 강화유리 소재 뚜껑에 스팀 홀을 탑재했다. 내열성과 내구성으로 보관·조리·식사까지 한 용기로 모두 가능하다. 이 제품은 -40도부터 560도까지 견디는 내

열유리 소재로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다. 유리 소재 특성 상 음식을 오래 보관해도 냄새와 색이 남지 않고 뚜껑 내측 실리콘 림 처리로 밀폐력도 좋다. 뚜껑을 제외한 유리 본체는 오븐과 에어프라이어에서도 이용한다. 베이킹부터 찜, 구이 등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다. 뚜껑까지 안전한 내열 강화유리 소재로 뚜껑을 닫고 스팀 홀을 열면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파이렉스 스팀엔 올 글라스는 직사각형(370·640·1050㎖, 정사각(320·520·800㎖), 원



형(400·650·950㎖) 등 총 9가지 제품으로 출시된다. **뉴시스**